진안군, 물고기 길 열었다

진안읍 운산리(상보) · 물곡리(진밤들보) 어도 개보수 완료

진안군은 8일 관내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어도(漁道)를 설치해 생태계 복원 및 토산어종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약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설치된 진안읍 내오천(운산리, 물곡리) 2개소의 어도는 길이 60m 폭 2.6m로 내수면 어종이 회유하는데 가장 적합한 계단식으로 설치됐다.

군은 이를 통해 내오천에 서식하는 붕어, 가물치, 미꾸라지, 피라미 등 내수면 어류가 강 상·하류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 어류서식 환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 훼손된 경제성 어종(꺽지, 눈동자케) 등의 서식지와 산란에 적합한 환경복원, 생태계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안군은 8일 관내 하천에서 어도(漁道)를 설치해 생태계 복원 및 토산어종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운산리 상보 어도

진안군은 올해에도 물곡리 일대에 어도 2개소를 개보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그간의 고생이 보람 되도록 경기 치렀으면"

무주군, 전국동계체육대회 바이애슬론 경기장 찾아 출전 선수단 격려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선수들이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바이애슬론 일반부 경기에서 선전(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획득)한 가운데 황정수 무주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 7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바이애슬론연맹과 전북스키협회, 무주군체육회 관계자들, 그리고 무주군 관내 13개교 인솔 교사들과 종목별 지도자들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김호엽 감독이 이끄는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이수영, 김용규, 이준복, 김태민, 임세현 선수를 비롯해 관내 초 · 중 · 고등학교 스키(알파인, 크로스컨트리)와 스노보드, 바이애슬론 선수 등 총 97명으로, 군에 따르면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이 지난 12월 25일부터 치러진 경기일정을 마쳤으며 1월 10일부터 12일까지는 초 · 중 · 고 바이애슬론 선수들이, 12일부터 14일까지는 크로스컨트리, 17일부터 19일까지는 알파인 스키, 13일과 19일은 스노보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황정수 무주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이 지난 7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했다.

황 군수는 "날도 추운데 어린선수들이 차가운 눈밭에서 훈련한다고 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라면서 "진즉에 경기를 치른 선수들은 고생 많았고 경기를 앞두고서 열심히 훈련 중인 선수들은 그간의 고생이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훌륭한 경기 치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제99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대회로 인해 지난달 25일부터 2월 4일까지 7개 참가 종목별 협회(연맹)에서 직접 주최 · 주관한 가운데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일원에서 진행된다.

군은 올해 무주군청 바이애슬론팀 지원과 바이애슬론 및 스키 꿈나무 지원을 위해 총 7억여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선수들의 전지훈련과 장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선수들은 올해 전국동계체육대회를 비롯해 총 3개 대회에 출전 예정으로 현재까지 제32회 회장컵 전국 바이애슬론 대회 등 2개 대회에서 금 5, 은 5, 동 9개를 획득해 앞으로 남은 전국동계체육대회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유럽의 풍경과 역사를 화폭에'

김다해 '그림여행' 展… 장수미술관서 14일까지

장수군 계남면 궁양리에 위치한 장수군 문화예술촌 내 장수미술관은 지난 1월 2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김다해 작가의 '그림여행'展이라는 주제로 기획초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기획초대전을 하고 있는 김다해 작가는 장수군 계남면 출신으로 서울과 미국LA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서울, 경기지역, 오스트리아, 몽골국제 아트페어 및 초대전을 여는 등 활발한 작가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전시 작품은 총 17점의 서양화 작품으로 구상과 비구상으로 작가의 작품 활동의 일부인 '그림여행'의 소재인 유럽을 배경으로 영국,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등을 둘러보며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과 중세도시의 역사를 작가의 감성으로 재해석해 화폭에 담아냈다.

장수미술관에서는 전국의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의 전시회를 연중 기획·전시하고 있으며, 2018년에도 이형란 조각가(1.16~1.28), 15명 작가가 합동으로 전시하는 도자기 전시(1.30~2.11) 권구연 한국화 작가(2.13~2.25)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을 전시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도 장수미술관은 지역주민들과 장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한편 이번 기획 초대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가능하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장수=고판호기자

폐슬레이트 신고 시 전량 군에서 처리

진안군, 슬레이트처리사업 간담회 가져

진안군은 최근 2018년 슬레이트 철거와 관련한 업무 협의를 위해 관내 슬레이트 철거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도 슬레이트처리사업 추진에 앞서 관련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철거 후 발생되는 폐슬레이트를 마을공터, 도로변 등 공공장소에 무단 배출하는 행위와 무면허 사업자나 개인이 무방비 상태로 슬레이트 철거 시 형사고발 등 강력한 법집행으로 불이익처분을 실시할 계획임을 사전 안내하였다.

또한 주민의 슬레이트 철거 요청 시 합리적인 견적과 적기 철거로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폐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 철거와 처리 시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진안군에는 9개 사업자가 면허를 등록해 빈집정비와 지붕개량 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진안군은 올해에 폐슬레이트 1만3,000㎡에 대하여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등록된 사업자가 슬레이트를 철거하여야 하며 폐슬레이트를 자진 신고 시 전량 군에서 처리해주는 만큼 불법 배출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메아리

장수군, 희망청년농업인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신청 · 접수

장수군은 올해부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희망 청년 농업인은 오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은 매월 최대 1백만원이다.

또한, 2018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도 30일까지 접수 중이다. 후계농업경영인은 만18세 이상 만 50세미만의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영농자금은 최대 3억원으로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를 방문하여 서면접수하면 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실시

진안군은 농업인들의 새해영농계획을 수립하고 품목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9일 수박과정을 시작으로 10일 동안 농업인 1100명을 대상 농업기술센터와 11개 읍면에서 농업인실용교육이 진행된다.

수박(9일), GAP(10일), 멜론(11일), 오미자(12일)과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고, 23일부터 31일까지 벼농사와 인삼, 철쭉, 양파, 고구마, 고추, 깻잎, 참깨교육은 읍면에서 이뤄진다.

특히 읍면 교육은 '우렁이농법'에 대하여 집중 교육할 계획이며, 고추 육묘관리와 병해충방제에 대해서도 교육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가축재해보험 지원 추진

장수군은 각종 재해(화재)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올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입축종은 16개 축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이며, 보장대상은 가축을 비롯해 축사 시설물 등이다.

보험 가입은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년간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진행한다.

가축재해보험 보험료는 국비 50%, 지방비 25%(농가당 100만원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농가는 총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장수군은 225농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